

가계 대출금리 '내리막' ... 中企는 4% 돌파

한국은행 2019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지난달 가계 대출금리가 석달 연속 하락하며 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장기 시장금리가 따라 오르지 않아 이와 연동된 대출금리가 줄줄이 하락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석달 연속 상승하며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다.

26일 한국은행의 '2019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는 평균 연 3.58%로 전월보다 0.03%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3.63%)부터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3.51%)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 대출금리가 하

락한 것은 연동된 시장금리가 내려 갔기 때문이다. 장기물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09%로 전월보다 0.02%p 떨어졌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12%로 전월보다 0.07%p 하락했다. 지난 2016년 11월(3.04%)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집담대출금리(3.14%)도 0.09%p 내려갔다.

일반신용대출금리는 0.07%p 하락한 4.57%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4.39%)부터 3개월 연속 오르던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진 것은 지표가 되는 단기 시장금리가 하락 전환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채 3개월과 6개월물 금리가 0.04%p, 0.03%p씩 떨어졌다.

가계, 석달째 ↓ 연 3.58%...주담대 2년2개월來 최저
기준금리 인상 불구 시장금리 줄줄이 하락한 영향
중소기업 대출금리, 3년10개월만에 4%대 재진입

기업대출금리는 3.81%로 전월보다 0.04%p 올랐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58%로 전월보다 0.08%p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2%p 올라 4%를 돌파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대를 넘어선 것은 2015년 3월(4.02%) 이후 3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 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에서 비우량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업과 가계를 합한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1%p 상

승한 3.73%를 기록했다.

단기 시장금리 하락에 은행 수신금리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2.05%에서 0.05%p 떨어진 2%를 나타냈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2.01%로 0.04%p 떨어졌고, 시장형 금융상품금리가 1.98%로 0.06%p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떨어졌으나 전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3%로 전월보다 0.06%p 확대됐다. 다만 은행들의 수익과 직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31%로 전월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해 4분기 전남 어업생산량 전년 비 6.0% 증가 24만4385t

지난해 4분기 전남 어업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남의 어업생산량은 24만4385t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23만587t 대비 6.0% 늘어나 수확다.

어업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이 37.7%, 내수면어업이 20.5% 증가한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1.1% 감소했다. 같은 시기 어업 생산금액은 78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7568억 원 대비 3.1% 늘었다.

어업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은 23.0% 증가한 반면 천해양식어업은 5.7% 내수면어업은 21.0% 줄었다.

주요 품종으로는 갈치 1248t(52.3%), 참조기 869t(10.6%) 등이 증가했다. 멸치는 488t(-4.4%)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갈치는 서해 남부해역의 고온현상으로 어군밀도가 높아진 점이, 참조기는 7월 한 달 동안 금어기 이후 성어의 어군이 형성된 점이 어획량 증가로 이어졌다.

멸치의 감소는 남해연안의 고온현상으로 어군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천해양식어업 주요 품종으로는 김류가 2만458t(26.6%), 미역류가 4808t(15.5%) 증가한 반면 다시마류가 2만284t(-76.9%) 감소했다.

김류는 시설 채 수가 증가한 점, 양식에 적합한 해황으로 생산량이 늘었다. 다시마류는 하절기 폭염과 고수온 태풍의 영향으로 양식 환경이 악화돼 생산량이 감소했다.

전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이자 지원

월 최고 15만원 최장 3년

전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500가구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 리론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2019년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

한 도민이다.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도,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금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3년간 지급한다.

유연호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전남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농협 "3월3일 삼겹살데이 농협몰서 최대 42% 할인"

농협하나로마트는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농협몰을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구입용 삼겹살을 최대 4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돼지고기와 결할이면 좋은 쌈 채소, 양념 등 200여개 상품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행사에 적용되는 돼지고기를 구매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무료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동참해 어려운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황금돼지해 삼겹살데이, 한돈 먹는 날! 26일 서울 종로에서 한 식당에서 해태식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허하 홍보대사(앞줄 왼쪽) 등 참석자들이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 한돈인증점 450곳에서 진행하는 삼겹살데이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알리고 있다. 한돈 자조금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한돈인증점 450여개소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6개월간 12만4000명 가입

1인당 평균 가입계좌 1.33개...평균 가입금액 25만원

금융위원회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후 6개월 간 12만4000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밝혔다.

출시 직후 기존 복무 장병들의 가입 등으로 가입자 수가 월 3만명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2월부터는 1만5000~2만명 수준의 월 가입자 수를 유지 중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시 납입한 금액)은 약 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이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준비에 쓸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5% 이상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이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을 확대·개편해 지난해 8월29일 14개 은행

에서 일괄 출시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적립 가능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이며 군 복무기간에 한정된다. 월 적립한도는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농특세)와 재정지원을 통한 1%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 비과세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1%포인트 추가금리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은 편성됐지만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